

# 경제와 노후생활

## ■ 경제

- 동 향 : 전기대비 가계대출 증가폭 13.1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
- 이 슈 : (경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  
(산업)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산업 전망

## ■ 노후생활

- 테 마 : 유-헬스(U-health) 관련 시장 현황 및 사업 기회
- 세 심 록 : 소유효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 북 리 뷰 : 기업의 시대

□ 동향

○ 전기대비 3/4분기 가계대출 증가폭 13.1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

- 2014년 3/4분기말 가계신용은 1,060.3조원으로 2/4분기말(1,038.3조원) 대비 22.0조원(2.1%) 증가
  - 2014년 3/4분기말 가계대출은 1002.9조원으로 2/4분기말 대비 22.1조원(2.3%) 증가 하였으나, 판매신용은 57.4조원으로 0.1조원(0.1%) 감소
  - 2013년 3/4분기말(993.6조원) 대비로는 66.7조원(6.7%) 증가
- 2014년 3/4분기말 가계대출은 1002.9조원으로 2/4분기말 대비 22.1조원(2.3%) 증가하였으나, 판매신용은 57.4조원으로 0.1조원(0.1%) 감소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8.3조원 ↑ → 12.3조원 ↑)되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폭 축소(6.4조원 ↑ → 5.3조원 ↑)

○ 10월 경상수지는 90.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의 75.1억 달러에서 86.6억 달러로 확대, 서비스수지는 전월과 비슷한 2.5억 달러 적자 지속
  - 2014년 10월 수출은 51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 선박, 반도체, 철강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감소
  - 2014년 10월 수입은 442.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 소비재 수입은 9.0% 늘었으나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각각 8.2% 및 2.8% 감소
- 서비스수지는 전월과 비슷한 2.5억 달러 적자 지속,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규모는 해당 지급 감소 등으로 전월의 6.1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확대, 이전소득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시현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14	11/28	
실물지표	GDP성장률(%)	2.3	3.0	0.9	0.9	0.6	0.9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1.8	0.7	0.3	1.2	-2.7	2.0	-3.4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1	1.1	1.6	1.4	1.4	1.1	1.2	-	
	실업률(%)	3.2	3.1	2.8	4.0	3.7	3.3	3.3	3.2	3.2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48.4	151.3	241.3	226.6	73	76	90		
금융지표	국고채(3년)(%)	3.13	2.79	2.90	2.87	2.82	2.50	2.54	2.41	2.24	2.17	2.14
	원/달러(원)	1,126.8	1,095.0	1,062.1	1,069.0	1,029.6	1,026.2	1,025.4	1,033.2	1,060.3	1,091.4	1,105.7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2,009.3	1,946.1	1,993.2	2,041.9	2,060.9	2,042.7	1,942.8	1,950.1	1,970.3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11/17~28의 평균값임.

## □ 이슈 : (경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sup>1)</sup>

### ○ 개요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지역별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에 실패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도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일인당 GRDP를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 현황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준편차, 범위 등으로 측정한 지역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의 일인당 GRDP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일인당 GRDP 불균등도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상승하여 30개국 중에서 6위 수준이다.

### ○ 일인당 GRDP 격차 세부 요인별 분석

일인당 GRDP 격차는 노동생산성,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 격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인당 GRDP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다.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 간 격차는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16개 전 지역에 걸쳐 취업자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30개국 중에서 5위 수준으로 일인당 GRDP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울산은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다른 지역들을 크게 상회하여 전국 최고의 일인당 GRDP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의 투자 규모 차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효과,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 유출 차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격차 확대 효과가 격차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상회하기 때문에 일인당 GRDP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시사점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중앙정부는 지역 간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소재 대학-기업-지자체 간의 지역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확충하고, 청년층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백흥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031-288-7970)**

**안중기 선임 연구원 (joonggiahn@hri.co.kr, 031-288-7973)**

<sup>1)</sup>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 14-42호 (2014. 11. 17) 재구성.



## □ 이슈 : (산업)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산업 전망<sup>2)</sup>

### ○ 2015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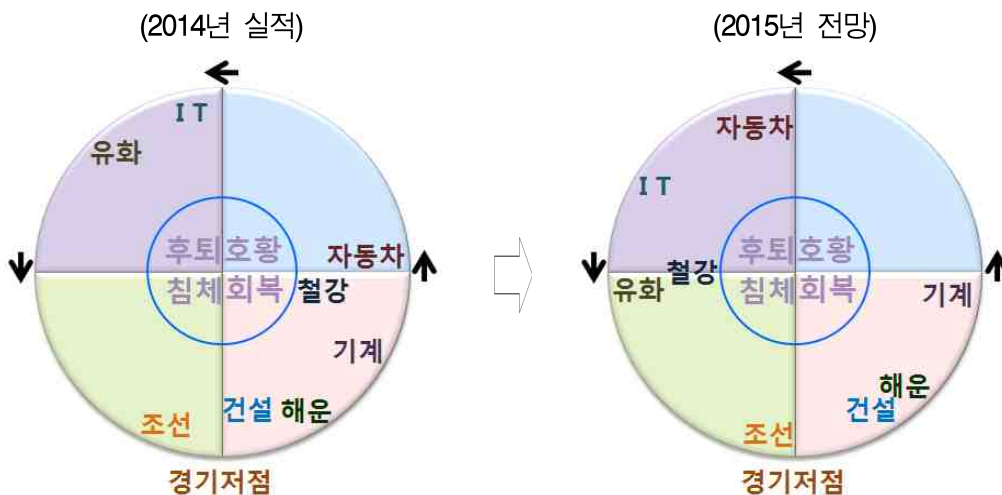
2015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4년보다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모두 성장세가 빠르지 않아 그 회복세는 상당 폭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은 회복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한 민간건축 부문 경기 회복, SOC 예산의 확대에 따른 공공토목 부문 발주 확대 등으로 경기 전반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운업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업종 시황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기계산업은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후퇴) 자동차산업과 IT산업** 경기는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은 수출 부문이 제한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은 세계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나, 스마트기기와 가전을 중심으로 해외경쟁기업들에게 세계 및 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철강산업, 화학산업, 조선업**은 불황 국면이 예상된다. 철강산업은 국내 철강의 주된 수요 산업중 하나인 건설업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로 불황이 우려된다. 화학산업은 동북아 과잉 공급능력이 해소되기 어려워 성장세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과 중국의 공급능력 급증에 따른 시장점유율 잠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산업 전망” 14-46호 (2014. 11. 21.) 재구성.

## ○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

① **(Sandwich)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인 국내 산업:** 한국 제조업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고 중국에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제조업의 현시 비교우위지수(RCA)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낮고 중국과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7대 주력품목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4%에서 2013년 4.7%(추정치)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은 동기간 2.2%에서 11.7% 급등했고 일본도 여전히 5.3%로 우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등으로 '신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② **(Traffic jam) 산업 경기 회복력의 급락:** 2015년 내수와 외수의 확장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주요 산업 경기의 회복 속도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건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는 가속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③ **(Oversupply) 중국발 공급과잉에 직면한 장치산업(철강, 유화):** 철강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한국 철강 산업의 시정점유율은 2013년을 정점으로 추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2015년 철강/유화 산업의 최대 불안요인은 '차이나 리스크'로 중국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 동북아 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전망된다.

④ **(Drop in Price competitiveness)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경기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4년 11월 20일까지 원/100엔 환율의 누적기간평균 1,005원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 2011년 평균 1,391원 대비 약 38%의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연평균 원/100엔 환율이 950원으로 하락하면 총수출은 5.8%의 감소 압력을 받으며, 900원으로 하락할 경우 8.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철강, 유화, 기계, IT 등의 수출 감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⑤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는 전자(電車) 산업 :** 자동차 산업은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IT/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반격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자동차와 IT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산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⑥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대 수주 산업(조선/건설) :** 동반 업황 부진 국면에 있었던 양대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기 방향성의 괴리가 전망된다. 건설업은 민간건축 부문 수주 확대와 SOC 예산 증가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업은 시장의 공급과잉 지속, 중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잠식 가속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⑦ **도약을 꿈꾸는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한중 FTA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 비교역재인 서비스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2015년 산업경기는 취약한 대내외 여건으로 성장세가 극히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장 구조적인 불황에 직면한 일부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 성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의 어려움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제2의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주도산업의 글로벌 시장 방어 노력과 내수 시장 점유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 조기 발주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류 확산 및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주 원 수석 연구위원외 (2072-6235, juwon@hri.co.kr)

□ **테마 : 유-헬스(U-health) 관련 시장 현황 및 사업 기회<sup>3)</sup>**

< 요약 >

○ U-health 서비스의 개요

- 유비쿼터스(Ubiquitous) IT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U-health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라 u-Medical, u-Silver, u-Wellness의 3대 분야로 분류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주요국 정책 동향

- (세계) U-health 시장은 고령화, IT 융합기술 보급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세계 시장규모는 2007년 1,431억 달러에서 2013년 2,54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18년 까지 약 4,98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국내) U-health 시장은 2014년 3조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11조원으로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2014년 기준 U-health 시장규모는 u-Medical 부문이 약 5,600억원, u-Silver 시장이 약 4,900억원, u-Wellness 시장이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정책)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U-health 산업의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국내외 기업 동향

- (해외) 미국의 GE, Microsoft, Cisco, Oracle, Intel, Google, AT&T 등 대규모 IT/통신 기업 및 일본의 마쓰시타, NTT 도코모 등을 중심으로 산업 진출 가속화
- (국내) SKT, 삼성 등 통신, IT 대기업의 헬스케어 분야 적극 참여 등 민간 주도로 U-health 시장 기회가 앞당겨짐

○ 시사점

- U-health 산업의 성장성이 기대되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
- 정부의 육성 노력 및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기회 모색
- 현대 U&I의 사업영역을 U-health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3) 현대경제연구원, '유-헬스(U-health) 관련 시장 현황 및 사업 기회', 신성장 연구 14-7호, 2014년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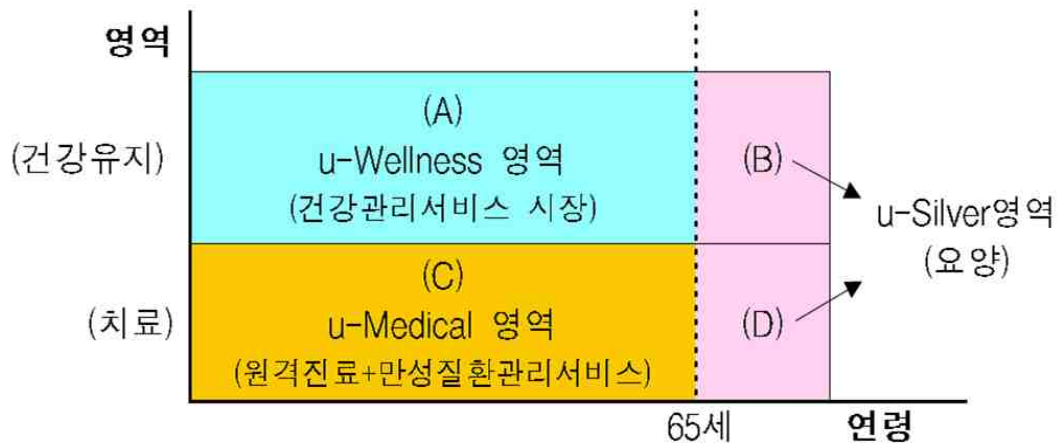
□ 유-헬스(U-health) 관련 시장 현황 및 사업 기회

1. U-health 서비스의 개념과 도입 배경

○ U-health 서비스의 개요

- (정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IT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기존 의료시스템에 IT기술을 적용하여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지식,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건강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개념
  - Tele-medicine<sup>4)</sup>, Tele-health<sup>5)</sup> 및 e-Health<sup>6)</sup>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분류) U-health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라 u-Medical, u-Silver, u-Wellness의 3대 분야로 분류
  - u-Medical은 치료중심으로써 의료법 적용대상이며, u-Wellness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인 새로운 영역
  - u-Silver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임

< U-health 서비스의 분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Tele-medicine : 원거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문서 등 정보에 기반하여 개입, 진단 및 처방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의료행위.  
 5) Tele-health : 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원거리에 건강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6) e-Health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



○ U-health 서비스 산업의 도입 배경 및 효과

- (도입 배경)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비 상승 등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 특히, 보건의료의 패러다임도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잠재된 서비스 수요 급증
  - 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u-Health산업은 IT·BT·서비스 등이 복합된 대표적인 융합 신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미래 성장동력
  - U-health 산업의 국내시장은 연평균 12% 이상의 고속성장 전망
- (도입 효과) 환자의 진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의사/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보건사업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기존의 의료기관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업체, 통신사업자, 인터넷플랫폼사업자, U-health 장비 및 단말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에 기여

< U-health 도입효과 >

주체	U-health 도입 효과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후송비 및 진료비 절감</li> <li>-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감소, 생산성 증대(근로시간 연장 등)</li> <li>-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li> <li>-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 절감,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향상</li> <li>- 서비스의 연속성 증대(서비스단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방지)</li> </ul>
의사/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질 향상 : 개선된 또는 신속한 진단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li> <li>- 의료기관간 환자이동 비용 절감, 환자후송 시 대기시간 단축</li> <li>- 의료인력의 재교육기회 확대, 의료인력간의 신뢰 확대</li> <li>- 지역내 병원과의 연계 강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li> <li>- 서비스공급 비용 절감 및 경영 개선</li> </ul>
공공보건 의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건사업 수행비용 절감, 대상자 확대 용이</li> <li>- 공공보건사업 수행의 효율성 증대</li> </ul>
사회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및 형평성 증대</li> <li>- 사회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li> <li>- 국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trust) 증진</li> <li>-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li> <li>- 국민의 전체적인 기회비용 절감, 국민의료비 절감</li> <li>- 보건의료 성과의 효율성 증대,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li> <li>- 농촌, 원거리지역의 고급기술인력 채용, 훈련, 보유 및 지속적 교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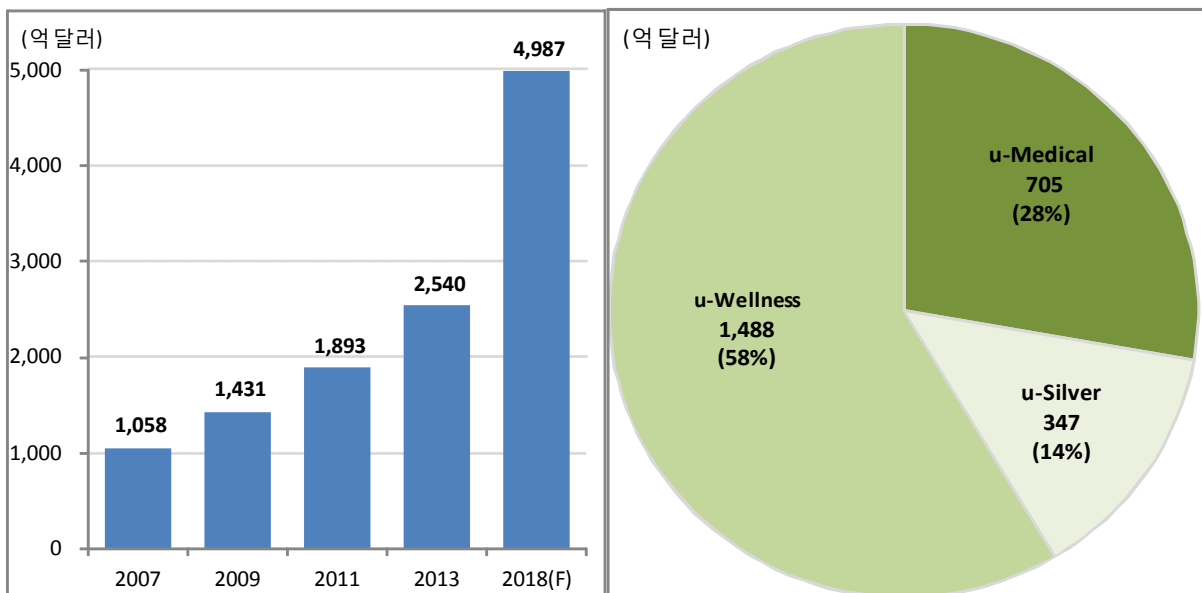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 2. 유-헬스(U-health) 시장 현황 및 전망

### ○ 세계 U-health 시장

- 세계 U-health 시장은 고령화, IT 융합기술 보급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세계 시장규모는 2007년 1,431억 달러에서 2013년 2,54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18년 까지 약 4,98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2013~2018년 동안 연평균 15.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U-health 시장은 u-Wellness 서비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
  - 2013년 기준 u-Wellness 서비스는 1,488억 달러 규모로 전체 U-health 시장의 약 58.6%를 차지하고, u-Medical이 27.8%, u-Silver가 13.7%를 차지
  - 2013~201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u-Wellness 서비스가 17.9%, u-Medical이 15.0%, u-Silver가 9.7%를 차지
  -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산층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인 u-Wellness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 세계 U-health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 U-health 부문별 시장규모 현황(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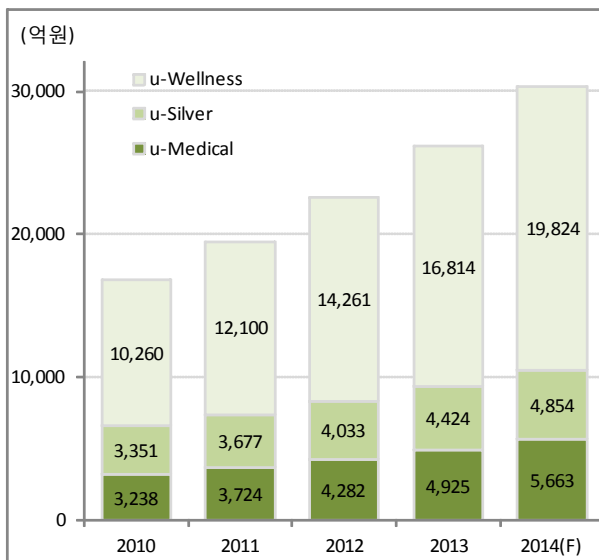
자료 :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2010.

자료 :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2010.

○ 국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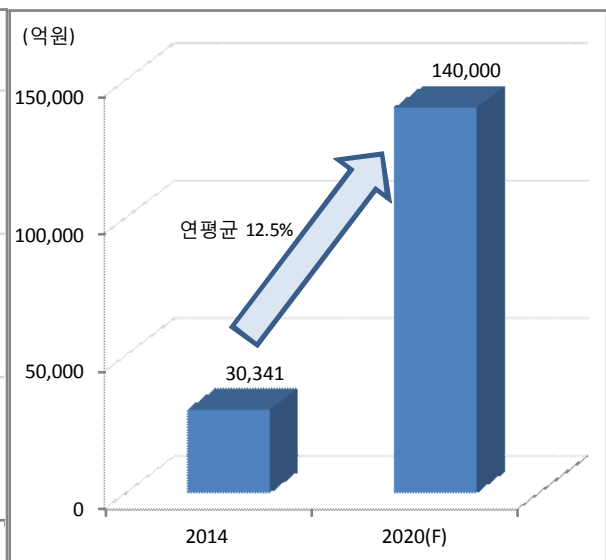
- 국내 시장의 경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의료기기 산업의 발달과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빠르게 성장해 옴
  - 2014년 기준 U-health 시장규모는 u-Medical 부문이 약 5,600억원, u-Silver 시장이 약 4,900억원, u-Wellness 시장이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 국내 U-health 시장은 2010년 약 1.7조원 규모에서 2014년 약 3조원 규모로 5년동안 두배 수준으로 확대
  - 제도적 측면의 경우, 2003년 전자의무 기록, 전자처방, 원격진료에 대한 법제화로 인하여 의료정보화의 법적 환경이 조성
  - 이를 통해 의무기록, 처방전의 전자문서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격의료 시술에 대한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기틀을 마련
- 국내 U-health 시장은 2014년 3조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11조원으로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우리나라 경우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U-health 구현의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
  - 광대역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RFID나 센서 네트워크 등의 IT 기술이 의료분야에 융합되면서 보건의료의 유비쿼터스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

< 한국 U-health 시장규모 추이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0.05).

< 한국 U-health 시장규모 전망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0.05).

○ 국내외 주요 기업동향

- (미국) U-health 서비스 시장은 GE, Microsoft, Cisco, Oracle, Intel, Google, AT&T 등 대규모 IT/통신기업과 Continua 등 의료 관련 기관들이 주도
  - GE Healthcare는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사업단위로서 매출액은 연 \$170억이며, 46,000명의 인원이 100여개국의 고객 및 의료진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Microsoft는 체중조절, 혈압 관리, 가족건강관리, 비상시 대처 등에 대하여 Web Applications와 건강기기를 통하여 해결
  
- (일본) 주요 가전 및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U-health 산업에 진출 가속화
  - 마쓰시타사는 조명 및 침대 등 10가지 가전을 통합 제어하며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쾌면 시스템`을 제공
  - 유무선 종합 통신사 NTT는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의 의료정보화를 구축
  
- (한국) SKT, 삼성 등 통신, IT 대기업의 헬스케어 분야 적극 참여 등 민간 주도로 U-health 시장 기회가 앞당겨짐
  - 삼성전자가 삼성메디슨 등을 통해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원격 의료기기를 선보일 것임
  - SK텔레콤은 서울대병원과 벤처기업 헬스커넥트를 설립하고 ICT와 병원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
  - KT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합작기업 후헬스케어를 세우고 초소형 센서기기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24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

< 해외 주요 기업 현황 >			< 국내 주요 기업 현황 >		
국가	기업	주요 분야	산업	기업	주요 분야
미국	GE Healthcare	- 의료영상 및 정보기술, 의학 진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	삼성전자	- 개방형 건강관리 플랫폼인 '삼성 디지털 헬스'
	Microsoft	- Web Applications		LG CNS	- 홈 헬스케어 솔루션
	Philips	- TV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	통신	SK 텔레콤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IBM	- 이동 중 개인 건강측정 모델		KT	- 환자 건강상태 확인 초소형 센서
일본	마쓰시타	- 쾌면시스템, 건강·미용기기	의료 기관	서울대 병원	- 헬스커넥트 설립, 융합형 헬스케어
	NTT 도코모	- 스마트 헬스 등 모바일 플랫폼		삼성서울병원	- 삼성전자, 삼성메디슨과 유헬스 모델 구축

자료 : 각사 자료.

자료 : 각 사 자료 및 한국지능형고통체계협회.

### 3. 국내외 유-헬스(U-health) 추진 동향

#### 1) 국외 주요국 동향

##### ○ (미국) U-health 산업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성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 1997년에는 **Balanced Budget Act(연방원격진료법안)**를 제정
  - 의료취약 지역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하고, 매년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U-health 전담부서를 마련
- 2004년 **NHII(National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발표
  -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구축 및 의료정보화를 통한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을 발표
- **오바마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 할 계획 발표**
  - 2009년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 수준향상, 그리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를 계획
  - 의료보험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단순 건강관리 및 원격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자대상의 U-health를 강화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
- **U-health 산업은 개인이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민간형 구조로 민간 보험사와 IT, 의료 관련 대형 벤더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 (일본) IT 기반의 개혁프로젝트에 U-health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 일본에서 U-health는 원격진료와 같은 개념이며, 1971년 오카야마현의 오지에 의료 서비스 공급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와 전화선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시작
  - 이후 1997년 후생성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U-health가 시작되게 됨
  - 현재 IT 기반의 개혁프로젝트에 건강관리 부분으로 U-health 프로젝트들이 추진
- 2001년 '국가 Grand Design'의 일환으로 **Healthcare 정보화를 시작하여 중장기적인 정책하에 U-health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를 추진**
  - IT 기본법과 E-Japan 전략을 수립하여 U-health의 정책과 인프라 지원



- 일본의 의료법은 원격 판독 지원서비스와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원격 처방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원격 진료의 경우에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경우로 법규화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자와 같이 안정된 환자에 한해서 허용되고, 허용 대상은 재택 난치병, 당뇨, 고혈압,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산소요법 환자 등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
  - 하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로 U-health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진료 행위 지도, 원격 가정간호, 건강 관리서비스 등이 시범사업이나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루어지고 있음

○ (EU) 유럽 전역의 네트워크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U-health 서비스 실시

- EU는 2000년 5월 EU 회원국 국민과 기업의 온라인 사용 촉진을 근간으로 하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을 발표
  - 그중 e-health는 10대 선결과제 중 하나로서, 전 회원국의 의료시스템을 전산화, 온라인화 하여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적
- 2004년 진료 대기 시간 및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자 처방 및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건강 카드 도입 등을 포함한 'e-Health Action Plan'을 채택
  - e-Health Action Plan은 2010년까지 충족되어야 할 일련의 목표들로부터 도출되었으며, e-Health는 사회적 포용(inclusion), 공공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정보통신 관련 연구 촉진, 개방적·경쟁적인 디지털 경제를 추구하는 EU의 2010년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선정
- 2008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전역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수준에서 수행할 조치계획(안)을 채택

○ (캐나다) 1994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U-health 인프라 구축

- 2000년 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출자를 통해 호환성 지원 EHR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업 CHI(Canada Health Infoway)를 설립
  - 운용 EHR 시스템을 2009년까지 전체 국민의 50%, 2020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
  - 2010년 기준 약 26,000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약 2,500명의 환자가 원격가정간호(Tele-homecare)를 받고 있음

## 2) 국내 유-헬스(U-health) 추진 동향

### ○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를 통해 본격적 산업 육성

- 정부는 유헬스 산업 활성화 촉진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다양한 유헬스 시범사업을 추진
  - 원격의료의 가능해진 2000년대 초반 이후 공공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의료 취약계층 해소, 의료 복지 수준 향상, 사회적 안전망 확충, 원격 의료, 응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U-health 서비스 적용을 시도
-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U-health 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제시
  - U-health 서비스를 u-Medical, u-Silver, u-Wellness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할 계획 발표
  - u-Medical 분야 : 의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관건으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원활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시장확대형 육성전략을 추진
  - u-Silver 분야 : 고령친화형 제품개발과 함께 사용자의 체험과 부담경감을 통해 수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고령친화체험관 등 체험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수요연계형 육성전략을 추진
  - u-Wellness 분야 : u-Medical과 달리 의료 관련 법규의 제한 없는 가운데,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

#### < 정부 부처별 U-health 시범사업 추진 사례 >

부처	주요 시범사업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의료: 보건소, 요양시설, 산업장 근로자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li> <li>- 독거노인 안전관리</li> <li>-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건강관리 서비스</li> <li>-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li> </ul>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 SKT 컨소시엄(SKT, 삼성전자, 인성정보/경기,충북), LG전자 컨소시엄(LG전자, LG유플러스, 대구)</li> <li>· 만성질환 및 고위험군에 대해 생체신호 측정 및 원격상담,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li> </ul>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강남구 u-health park</li> <li>- 서울시 서초구 생생일터 가족사랑 프로젝트</li> <li>- 서울시 노원구 평생건강관리 사업 등</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진료서비스</li> <li>- u-방문간호 서비스</li> <li>- 재택건강관리 서비스(시범사업 모형)</li> </ul>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외 각 정부 부처 자료.

#### 4. 시사점

- 첫째, U-health 산업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산업 진출 고려
  - 우리나라 기업은 의료기관과 IT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U-health 인프라를 확대구축하고, 주요 선진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꾀할 수 있음
  - 특히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지향하고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적용 의무화 등 선진 프로젝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융합산업으로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크게 부상할 전망
  
- 둘째, 정부의 U-health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노력 및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기회 모색 필요
  - u-Medical 분야 : 원격모니터링·상담·전자처방서비스, 원격영상진료, 건강정보 데이터 정리·가공 서비스 등
  - u-Silver 분야 : u-Silver 전용 플랫폼, IT기반의 u-Silver 헬스기기 등
  - u-Wellness 분야 : 운동기록 평가·운동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영양분석관리 소프트웨어, 건강평가 알고리즘 등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

## □ 세심록(洗心錄)

### ○ 소유효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구매를 유보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할텐데 미동도 하지 않는 모양새이다. 더군다나 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비용이 과다한, 일명 하우스푸어들조차 쉽사리 자신의 집을 시장에 선뜻 내놓지 않고 있다.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본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물건을 팔아야 할 때 불안과 고통을 일으키는 두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사람들의 소유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머그 실험이다. 시카고대 테일러 교수는 경제학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머그잔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머그잔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얼마에 팔 용의가 있는지,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얼마에 살 용의가 있는지 가격을 적도록 했다. 실험 결과는 흥미로웠다. 희망 판매가는 평균 5.25달러인 데 비해, 희망 구매가격은 평균 2.75달러에 불과했다. 손실의 고통은 이득의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컵을 소유한 학생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구매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던 것이다. 머그잔에서조차 소유효과가 나타나는데, 팔아야 하는 대상이 집이라면 그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기현상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사고 나서 하루하루 경험했던 많은 것들로 인해 집에서 아늑함을 느끼게 된다. 소유효과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 집을 살 때 지불했던 돈보다 적게 받고 집을 판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물론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처음 거래해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팔길 꺼려하지만, 거래 경험이 쌓일수록 그런 망설임은 사라진다. 거래 경험이 소유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행동의 경솔함은 모든 선과 덕을 파괴하는 원인이다.**

- 세네카: 고대 로마의 철학자

## □ 북리뷰 : 기업의 시대<sup>7)</sup>

이 책은 CCTV 다큐제작팀이 기획에서 제작까지 2년여에 걸쳐 만든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업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조망한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권에 담아낸 책이다. 다큐멘터리 방영 당시 제목은 '기업의 힘'이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EBS를 통해 방영되었다.

- **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제도가 발명된 후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경제조직으로 자리 잡음**
  - 기업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한책임에 있으며 기업을 설립할 때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 기업에 대해 책임을 짐
  - 기업은 부의 창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변화, 규칙과 표준 제정 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왔음
- **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은 특권 기업이 성장**
  - 이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며 시장경제 국가들마다 현대적인 공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인류는 산업화 시대로 들어섬
- **기업들은 경제 대공황에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끊임없이 부침을 겪어 왔음**
  - 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기업들은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을 개선했으며, 신흥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
- **기업은 초기에 기술자에게 자본을 보조해주는 역할에서 현재 기술혁신의 주체로 거듭남**
  - 기업이 가져온 기술혁신은 기업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혁신은 기업 생존의 숙명이며 기업은 인류 혁신의 선두에 서 있음
- **최근 소유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위탁대리의 문제로 경영자의 도덕성이 주목받고 내부자 통제가 기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름**
  - 기업 관리의 미래는 주주와 경영자, 감독자, 직원, 고객, 사회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음
- **현재 글로벌화로 국경 없는 세계가 열리며 새로운 기업의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은 현지화라는 난제에 봉착**
  - 기업들은 글로벌화와 현지화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고용자 및 소비자들과 이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

7) CCTV 다큐제작팀 지음, 허유영 옮김, "기업의 시대", 다산북스, 2014.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